

연해주 츠그에프카지역 A. A 파디에프(Fadeev)기념종합학교의 에코클럽 「에델바이스」 (Edel`veis) 의 환경보호 자원봉사활동 체험

- 1 자치단체명 : 러시아 연해주
- 2 발표자명 : 가리나·라단스카야 (Galina Radyanskaya)
(츠그에프스키지구 (Chuguevskii) 츠그에프카지역 (Chuguevka) A. A. 파디에프 (Fadeev) 기념종합학교 10 학년)
- 3 활동기간 : 10 년간
- 4 활동장소 : 연해주, 츠그에프스키지구, 츠그에프카지역
- 5 활동참가인원 : 100 명
- 6 활동을 시작한 경위 : 이 지구(地区)의 자연과 문화유산보호, 청소년 상상력 육성, 환경교육, 애국심교육의 목적으로 시작한 활동
- 7 발표요지 :

러시아연방 국립공원 「호랑이의 호소」의 일부는 츠그에프스키지구에 위치해 있다. 2018 년 6 월 2 일은 국립공원에 있어서 기념할 만한 날이다. 그날에 국립공원 탄생을 축하하는 큰 행사가 있었다. 그날부터 에코클럽 「에델바이스」 멤버는 국립공원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했다. 국립공원 로고를 정하는 콩쿨이나 「국립공원 「호랑이의 호소」의 관광개발」이라는 프로젝트에 참가함과 동시에 히말라야삼나무 보호활동을 실시했다.

에코클럽 「에델바이스」는 20 년간 환경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에코클럽 「에델바이스」는 친환경적인 미래를 향한 길이다!」라는 슬로건으로 활동하고 있다.

에코클럽의 임무는 이 지구의 자연·문화유산 보호, 청소년 상상력 육성, 환경교육, 애국심 교육이다.

우리의 과제는 환경교육에 공헌하는 것, 환경보호활동에 지역주민을 참가시키는 것, 지구(地区)의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에코클럽 멤버는 한국, 러시아, 일본, 중국에서 개최된 환경활동리더 육성사업에 몇번이나 참가해 왔다. 이 사업에서는 환경문제 해결책에 관한 의견교환을 실시했다. 러시아 아스트라한시에서 개최된 청소년환경포럼 「녹색지구」에도 참가했다.

매년 이 학교의 학생들은 새들을 위해 먹이 넣어주기, 찌르레기의 새장을 만들어 설치하고 있다. 2018 은 러시아에서는 「황새의 해」로 선언되었다. 우리들도 황새보호액션에 참가했다. 「새들에게 온기를!」이라는 작문과 그림콩쿨에 156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매년 교정청소를 시작으로 「깨끗한 거리는 내손으로」라는 액션에 참가하고 있다. 그외에 주민들과 환경에 대해 의견교환, 전단지배부등을 하고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가능한 한

범위에서 공헌하고 있다. 「호랑이의 날」, 「지구의 날」에 참가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중앙거리를 행진하고 호소했다. 3 월 「어스타임」, 4 월 「자신의 나무를 심자!」라는 액션에 참가해, 여러가지 나무 묘목을 심고있다.

「자신의 나무를 정원, 마을, 집, 숲에 심자」라는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있다. 학교주변에서는 오염된 흙을 제거하고 깨끗한 흙으로 바꾼후 묘목을 심고 있다. 이번에 1학년부터 11학년까지 전학년이 이 작업에 참가했다. 전학년이 담당 묘목을 돌보기로 했다.

에코클럽 「에텔바이스」의 멤버도 보호자와 함께 중앙경기장 주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모종을 심었다.

몇 년동안 우리 에코클럽에서는 여러가지 프로젝트 활동으로 「에코클럽 「에텔바이스」는 친환경적인 미래를 향한 길이다!」라는 슬로건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시민인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들은 행동하고 있다.

에코클럽멤버는 졸업하고 바로 사회속으로 나간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 온 행동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활에서도 환경문제쪽에서 많은 졸업생이 활동하고 있다.